

학술단신

'종교와 문화' 세미나

종교인평화회의, 12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김동은)가 종교간 올바른 이해와 수용을 도모하고 종교계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97 종교지도자 세미나를 6월12일 세종문화회관(1부)과 도고 파라다이스호텔(2부)에서 개최한다.

'종교와 문화'란 주제의 이번 세미나에는 '21세기를 여는 한국 사회문화와 종교'(김진현 서울시립대) '한국의 의식과 종교'(박일영 가톨릭대) '한국 사회와 정신문화 피해 원인과 대책'(김희성 서강대) 등이 발표된다. (02)816-2250

학술연구비 지원

성철사상연구, 23명에

성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이 97년도 학술연구비 대상자를 선정했다. 연구비 지원 대상자는 성철경교수(연세대 국문학) 최일일교수(성균관대 한국철학) 등 총 23명. 연구비 대상자들의 논문은 '백련불교논집'에 게재된다.

'동국사학' 30호 발간

동국대 사학과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동국사학> 30호 특대호를 발간했다. 이번 특집호에는 이기동교수의 '고구려사 발전의 劃期로서의 4세기'란 논문을 비롯 김병근씨의 '신라종교의 화랑도' 심요섭씨의 '신라 사천왕 신앙의 수용과 전개' 등 논문 25편이 수록됐다.

'단호문화연구' 창간호

전통문화유산을 발굴 재현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용인대 전통문화연구소(소장 김춘남)가 <단호문화연구> 창간호를 발간했다. 정우택교수(경주대 문화재학과)의 '이학소장 수월관음도의 표현과 기법' 박지선씨(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장)의 '이학소장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보존수복에 관하여' 등 4편의 논문이 실렸다.

"저술연구-번역 체계화 필요" 버즈웰교수

국제 원효학회, '원효의 사상체계...' 학술회의



김영태교수



박성배교수



김영태교수

원효사상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한국적' 특질만을 찾는 진부한 태도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불교전통과의 상호연관을 연구하고 번역에 대한 철저한 각주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제원효학회(IAWS 공동회장 송석구·세리케니)가 5월30일 '원효의 사상체계와 원효전서 영역상의 제문제'란 주제로 동국대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버즈웰교수(UCLA)는 '원효저술 영역상의 제문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버즈웰교수는 "불교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원효의 저술은 경(經)과 소(疏)에 관한 해석적 주석서가 주류를 이루는 만큼 원전의 의미구조를 세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원효사상 형성에 영향을 준 불교 경전에 대한 인용(引證)을 밝히고 주석서에서 자주 쓰이는 수사(修辭)의 목적 작성 등의 기초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번역 원전으로 <한국불교전서> 외에도 <신수대장경>에 수록된 원효 저술까지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IAWS 제1차 3개년 사업인 원효전서 영역사업을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박성배교수(동국대 석학)와 김영태교수(동국대 불교학)도 '원효사상의

"관념적 원효학연구 잘못" 박성배교수

"和會의 도리는 한마음" 김영태교수

논리구조' '和會의 도리를 통해 본 원효의 사상' 등을 각각 발표했다.

박성배교수는 "원효사상은 체(體)와 용(用)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으며 원효가 <대승기신론>의 제목을 풀이하며 대승은 체요 기신은 용(大乘是論之宗體 起信是論之勝能)으로 해석했듯 원효사상의 위대성은 바로 體의 발견"이라며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一心二門) 사상에서 화쟁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이문'은 바로 體인 진여문과 용인 생멸문을 가리키며 이들이 서로 원융될 때 '자재'와 '무애'가 나오는 것

이라 말했다. 또한 "<대승기신론>에는 '말로써 말을 버린다(因言誑言)'는 역설적인 사상이 명백히 흐르며 이 사상은 말(言, 用)에 얽매인 사부대중을 해방시켰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한국 불교학계가 그동안 관념론 이상주의 해체주의 관점에서 원효의 논리를 재구성하는 경향은 잘못"이라며 "원효는 체용의 논리를 토착화시킨 선구자"라고 말했다.

김영태교수는 "원효사상은 불교학의 큰 흐름인 법성(法性)이나 법상(法相)의 어느 종학(宗學)에도 치우쳐 있지 않은 하나의 '부처님 마음'(一佛心) 세계를 드러내는 화회(和會)의 학(學)"이

라며 "和會의 도리는 성상불이(性相不二) 즉 한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법산·보광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권기중 서문길 최현각 목정배 정병호 김성현 이영자교수, 서울대 심재용 윤원철교수, 연세대 신규택교수 서울교육대 은정희교수 뉴욕주립대 조성택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고 루이 랭카스터교수(버클리대)가 총평을 맡았다.

오종욱 기자

나의 경전



금강정경



정태혁 (동방불교대학장)

팔만대장경의 어느 경전을 보더라도 희유한 부처님의 고마운 말씀이 실려 있다. 그러므로 나는 불교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경전이라도 널리 섭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특히 한 경전을 지적하려고 한다면 근년에 와서 내가 주목하게 된 경전이나를 소개하겠다. 그 경전은 바로 <금강정경(金剛頂經)>이다. 조금은 그 경명이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 경은 일반불자들은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이 경전은 대승경전으로서 <화엄경>, <십진실경>과 서로 사상적으로 통하는데 <화엄경>이나 <십진실경>이 법의 원리를 보여주는데 비하여 <금강정경>은 법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하는 법의 행상(行相)과 실천을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다.

'금강정'은 금강과 정(頂)의 합성어로서 <금강정경>은 그 무엇에도 부서지지 않는 영원하고 견고한 최상의 진리를 상징하는 대승불교의 완성을 보여준다. 특히 <금강정경>속에 들어있는

이 자성으로서의 청정한 것임을 말하고, 내 마음이 청정하고, 대상이 청정하니 그들이 서로 상응하면 그것이 묘락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묘락세계가 되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다. 참으로 간명함이 한 이치를 깨닫지 못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지만 한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금강정(頂)에 말씀하시자 금강정(頂)이 부처님께 자들은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곳을 청정이라 함니까' 하고 묻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색 등의 대상을 관하거나 생각하여 능취(能取) 소취(所取)를 떠난다. 이른바 눈은 색을 취하고 귀는 소리를 취하고 코는 향을 취하고, 몸은 촉을 취하고 의는 묘락을 취한다. 마땅히 이들 남김없는 친근, 이것이 곧 청정이라 함니까' 하고, 이어서 이들을 취하는 대상이 청정함에 이른 것을 명비(明記)라고 하여 각각 명비로써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일체의 주관이나 객관이 있

모든대상 청정하면 묘락세계 열려

화엄경의 원융원리 구체적 제시

<대비유지금강대교왕의례경>에서는 대소승의 일승교의(一乘教義)를 과감하게 구체적으로 보임으로써 불교의 근본 입장을 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 경의 제9 청정품에서는 다른 경전에서는 말해지지 않는 과감하고 구체적인 교설이 나온다. <화엄경>이나 <법화경>에서 원리적으로는 사유되었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것이 <금강정경>에 이르러서 비로소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청정품 첫머리에서 부처님이 금강정 보살에게 고하시기를 '이제 청정함을 설함으로써 일체가 의축이 없다. 하나 하나의 성현위(聖賢位)는 위에서 마땅히 분별하여 실한 것이니라. 오온, 오대중, 육근 및 육처, 무지, 번뇌안도 자성은 모두 청정하다. 이른바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다른 것들의 지은 바도, 묘락상응(妙樂相應)이라고 설하노니, 경계등은 청정하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설교함으로써 일체성(一切性)이 청정하다고 설하신다' 라고 했다.

일체법이 청정한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나 몸이나 모든 대상들

게 된 법을 알면 그 대상에 끌리지 않는다. 주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오온, 육근, 육처, 무명, 번뇌 등이 있게 되지만, 만일 세간의 어리석음이나 진실을 알면 곧 이들의 계박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색은 색이 아니고, 성은 성이 아니고 향은 향이 아니고, 미는 미가 아니고, 촉은 촉이 아니고, 법이 법이 아니고, 또한 세간이 세간이 아니라 마음이 청정하니 곧 일체가 청정한 것이다.

일체처에 걸림이 없으면 그것과 지극히 친근할 수 있으니 지극히 즐겁고, 서로 조화를 이루었으니 묘락 그대로요, 내마음이 청정하며 집착이 없으니 대상이 법 그대로 어울려 그것이 친근하다. 이와같이 <금강정경>은 화엄경의 원융의 원리가 일체 사물에 나타나서 일체가 청정하다고 설하고 있다.

우리 불자들의 마음에는 금강과 같은 청정자성 보리심이 내재되어 있다. 이같은 보리심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소극적인 삶의 도피자가 아닌 적극적인 실천행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향해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인 수행의 목표를 세우고 이 <금강정경>을 꼭 공부해야 할 것이다.

나옹禪詩 '고루가' 첫 텍스트 분석

정진원씨 논문발표

선시(禪詩) 한문본을 번역함에 있어 고대어와 현대어의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서술구조를 비교하는 텍스트 분석이 중요하며 본래 의미도 배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옹스님(1320~1376)이 지은 한문 선시 '고루가(枯樓歌)'의 원문과 현대국어 번역본을 대조해 텍스트 분석을 최초로 시도한 정진원씨(홍익대 국어교육과 강사)의 '나옹과상의 고루가 텍스트 분석'에 따르면 '고루가' 첫 수의 노노형(勞勞形)은 '허망하게 허덕였던가'로 <나옹

화상집>과 <나옹록>에 각각 번역됐지만 '勞'는 '번뇌'로 '勞形'은 '번뇌의 형상'을 뜻한다는 것. 따라서 '허망한 번뇌의 제거기구나'가 본래 의미에 적당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둘째 수중 '육근치산주청황(六根馳散走靑黃)'에서靑黃은 '세월' '시간' '이리저리' 등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반해 <나옹록>은靑黃에 '검고 희며(靑白)'을 첨가시켜 방황의 세월로 해석해 본래 의미를 희석시켰다고 설명했다.

'바른 해골'이 운회를 거듭하며 진흙 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았지만 깨달음을 이루는 순간 이 모든 것에서 벗



정진원씨

어날 수 있음을 노래한 선시 '고루가'는 한 수가 4구씩으로 이루어진 총13수 한시로 <나옹집>(1972) <나옹록>(1991) <나옹화상집>(1995) 등에 번역됐다. 정진원씨는 "고루가의 원문은 6언구인 반면 <나옹집>에서 '3언구'로 서술되고 있는데 이것은 텍스트를 바라보는 시각의 시대적 차이"라며 "불교관련 번역서는 번역자와 편찬자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올바른 텍스트 분석을 위해 기명(記名)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논문은 텍스트 연구회(회장 이광수) 논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속>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티벳 하우스



박물관 서비스 '눈길' ...달라이라마 어록도 소개

티벳하우스는 티벳정부 산하 문화-학술기구로 인터넷 상에는 뉴욕과 런던 지부가 개설돼 △교육 △박물관 △환경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중 뉴욕 지부 '티벳 하우스' 사이트에 개설된 '박물관' 서비스는 18·19세기 티벳 동부지역에서 불교 의식에 사용됐던 의구(儀具)의 전시 정보를 비롯해 티벳관련 사진 3백여점을 그래픽 파일로 제공하는 등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뉴욕지부 '티벳하우스'는 이외에도 14대 달라이라마의 어록(語錄)을 제공한다. 이중에는 노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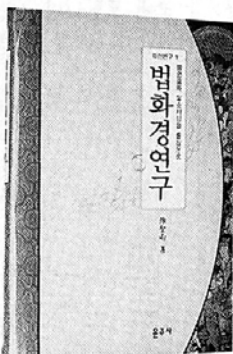
수상식('94), 미국기자협회('93), ICT('96)에 참여한 달라이라마의 연설문을 비롯해 '평화행진 선언문' '아시아 나우(Aisa Now)'지와의 인터뷰' 등이 제공되며 열람-로딩(가져오기)도 가능하다. 또한 티벳관련 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위스덤 출판사'(Wisdom Books, 美)와의 연동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 도서목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출판사를 방문하면 최근 발간된 <20세기 고승열전>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주소 'http://quietmountain.com/tibethouse/'

법화경연구

법화경의 핵심품인 방편품의 일승사상을 중심으로 법화경을 고찰한다!

대승불교의 완성, 법화경의 핵심사상을 규명

침예한 대소승의 대립으로 분타교범이 상실될 위기에, 이 양자를 화합시키려는 노력들의 결과물이 법화경 방편품이다. 그리고 그 핵심사상이 바로 일승이란 대명제였다. 일승사상의 규명을 통해 우리는 '정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徐聖雨 著/신국판 양장/330쪽/값 10,000원

운주사 증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中國淨土教理史

중국의 정토사상을 시대별·인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중국정토교의 변화·발전·쇠퇴의 모습을 한눈에!

염불·사경·불상조성 등 타력(他力)신앙으로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한 사람들의 발자취

정토의 교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중생들에게 적합한 수행법이다. 이 책은 중국 후한시대에 정토사상이 도입되면서부터 청나라 후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정토교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쇠퇴 등을 개관하고 있다. 그리고 각 시대의 정토수행자들의 사상과 실천수행의 모습을 광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梁月信亨 著·李太元 譯/신국판 양장/630쪽/값 20,000원

운주사 증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절대의 행복·죽음으로 부터의 자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죽음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과연 의연할 수 있는가? 웃으며 죽음을 맞이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인생은 대만족, 지금 죽어도 후회는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줄 것이다.

이미터들의 본원에 의해 누구나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凌金保 著·金鐘賢 譯/46면/202쪽/값 4,200원

운주사 증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